

제 1 교시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단어 분류가 가지는 공통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구분된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같이’의 경우, ‘같이 가다’에서는 부사로, ‘소같이 일만 하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 있다.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에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를 살펴보자.

(ㄱ) 어느 뉘 講訢니(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ㄴ) 迷惑 어느 플리(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 것인가?)
 (ㄷ) 이 두 말을 어늘 從訢시려뇨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중세 국어에서 ‘어느’는 (ㄱ)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ㄴ)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ㄷ)에서 ‘어늘’은 ‘어느’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여기에서 ‘어느’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가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사, 부사, 대명사로 두루 쓰인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ㄴ. 합격 소식을 듣고 그가 활짝 웃었다.
 ㄷ. 학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① ㄱ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군.
- ② ㄱ의 ‘두’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군.
- ③ ㄴ의 ‘웃었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군.
- ④ ㄷ의 ‘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군.
- ⑤ ㄷ의 ‘는’은 체언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가)에서 ‘이’는 두 개의 품사로, ‘새’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 (나)를 통해 ‘이’와 ‘새’의 현대 국어에서의 품사를 알아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해 봅시다.

[자료]

(가) 현대 국어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이 사과는 맛있다.
- 새 학기가 되다.

(나) 중세 국어

- 내 이를 爲訢야(내가 이를 위하여)
- 내 이 도늘 가져가(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 새 구스리 나며(새 구슬이 나며)
-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 새 出家訢 사르미니(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군.
- ② 현대 국어에서 ‘이’의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 ‘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군.
- ③ 중세 국어에서 ‘새’는 대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였군.
- ④ 중세 국어에서 ‘새’는 현대 국어의 ‘새’와 동일한 품사로도 쓰였군.
- ⑤ 중세 국어에서 ‘새’는 다양한 품사로 두루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 ‘새’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지 않군.

3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날 때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양상에 따라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① ‘물약[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옴는[음는]’에서는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값하다[가과다]’에서는 탈락과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요금[그괩뇨금]’에서는 탈락과 축약과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넓죽하다[넙쭈카다]’에서는 탈락과 교체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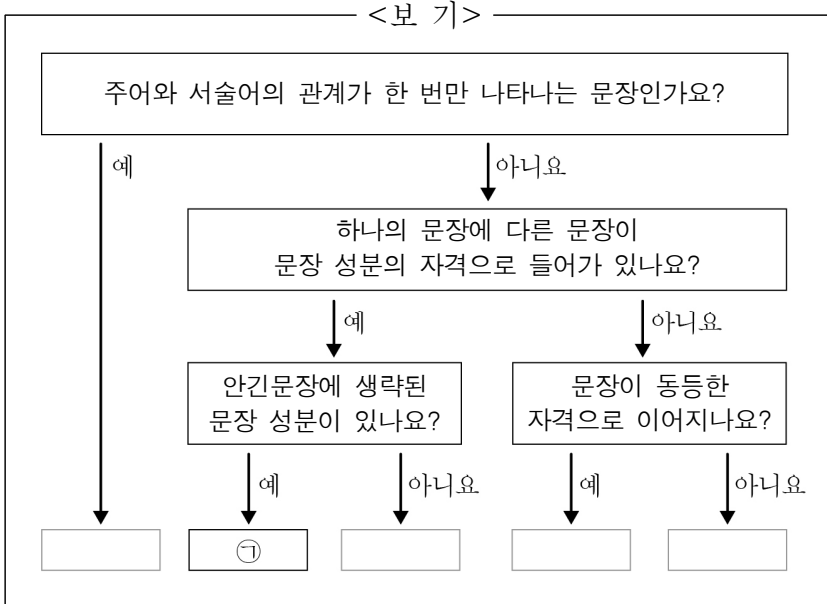
3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건이다.’에서 ‘갖은’은 ‘가진’을 잘못 쓴 예이다. ‘갖다’는 본말 ‘가지다’의 준말로, ‘갖다’와 ‘가지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런데 ‘갖다’는 ‘갖고’, ‘갖지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갖아’, ‘갖으며’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디디다/내딛다, 서투르다/서툴다,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건드리다/건들다’ 등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본말의 활용형만 쓴다.

- 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딛었다.
- ② 아저씨가 농사일에 서투른 줄 몰랐다.
- ③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쉴 생각이다.
- ④ 서두르지 않으면 출발 시간에 늦겠다.
- ⑤ 조금만 건드려도 방울 소리가 잘 난다.

3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
-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
- ④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40~42] (가)는 학생들이 ‘고전 소설 UCC’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진희’가 작성한 이야기판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전 소설 UCC 제작 대화방

진희: 애들아, 만나기 어려우니까 영상 구성에 대해 여기서 이야기해 보자.

민수: 좋아.^^ 우리가 선택한 <운명전>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 만큼 두 인물을 중심으로 영상을 구성해야 할 것 같아.

서영: 그래. 공녀 운영과 선비 김 진사의 만남,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보자.

지호: 만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 운영이 자기 손에 뒹 먹물 방울에 수줍어하는 모습에 나도 같이 설레더라.

진희: 나도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안평대군은 주인공들을 만나게도 했지만 가로막기도 했잖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때?

민수: 그래. 안평대군도 포함해서 소개하고 인물 소개 장면에서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넣어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희: 그럴 것 같아. 그럼 영상을 소설 제목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로 구성하는 걸로 하자.

민수: 우선 소설 제목을 소개할 때는 마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화면에 넣자.

서영: 좋아. 그리고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다들 내가 보낸 음악 한번 들어 봐.

서영: [음악 파일 전송: 해금 연주.mp3]

지호: 들어 보니까 정말 좋다. 줄거리 소개 부분에도 다른 배경 음악을 넣어 볼까?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레이션도 넣고.

진희: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줄거리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호: 있잖아. 줄거리는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볼래?

지호: [문서 파일 전송: 운영전 줄거리.txt]

진희: 정리 잘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골라 볼게. 아, 그리고 영상에 우리 이름도 넣어줄래?

민수: 물론이지.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

진희: 알았어. 그럼 내가 이야기판 초안을 만들어 볼게. 나중에 조언 부탁해.

(나)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운영전

서영, 진희, 민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자막

김 진사

자막

안평대군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사랑 노랫말의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호'는 매체상에서 공유된 음악 자료를 자신이 수집한 음악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지호'는 자신이 정리한 문서 파일을 대화 참여자들 중 특정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진희'는 매체상에서 전송된 문서 파일 자료를 바로 확인한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진희'는 매체 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화방을 만들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영'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슬픈 해금 연주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군.
 - ②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 제목과 주인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이름을 화면 아래쪽에 넣었군.
 - ③ 이야기판 2를 보니 등장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자막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했군.
 - ④ 이야기판 3을 보니 주요 장면을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고 차례대로 제시하며 줄거리를 소개했군.
 - ⑤ 이야기판 2와 3을 보니 영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을 활용했군.

42. <보기>는 학생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이야기판이다. ㉠~㉢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 **운영 전**

- 역을 한 방울로 이어진 만남 -






서영, 진희
면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안평대군은 두 주인공 사이에 위치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안평대군	김 진사
		
㉢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 **배경 음악:** 가사 없는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 ① ㉠: 주인공들의 인연이 부각되도록 인상적인 장면을 담은 부제를 넣자.
- ② ㉡: 주인공을 가로막는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
- ③ ㉢: 등장인물의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자막 위치를 옮기자.
- ④ ㉣: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으로 배경 음악을 바꾸자.
- ⑤ ㉤: 줄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의 개수를 늘리자.

[43~45]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라디오에서 방송한 대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2021년 7월 ○○일(○)

[연재] 지도와 세상 이야기②

우리 바다 '동해' 바로 알고, 지명 표기 방법 고민해야

입력 2021.7.○○. 오전 7:06 최종 수정 2021.7.○○. 오후 3:02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기록을 살펴보면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단순히 '동쪽 바다'만 의미하지 않았고, 해가 뜨는 바다로서 신성함과 기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왕건이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동해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왕건이 말한 동해는 고구려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동해가 국호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검색창]



연도	비율
1999년	3%
2009년	28%
2019년	40%

㉠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

현재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간직한 동해에 대한 정서는 없고, 단순히 동쪽에 자리한 바다만을 가리킬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지명인 동해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를 'DONG HAE'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박물관장) 인터뷰 동영상

동해의 이름 되찾기 연구를 지속해 온 김 △△(◇◇박물관장)은 동해의 지명 표기를 'DONG HAE/EAST SEA'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ONG HAE/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한 동해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동해를 'EAST SEA'라고 주장했던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해가 아닌 우리 바다 '동해'를 세계 지도상에 올바르게 표기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 기자(news@ooo.com)

㉢ **[관련된 뉴스]**

- ▶ 동해 표기의 역사, 우리 정부와 시민 단체의 노력
- ▶ 국제수로기구, 동해나 일본해 대신 고유 번호 표기 논의

댓글 6개

○○○**** 2021.7.00. 9:03
저희 학생 동아리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com] 링크로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 주세요.
[답글 3] 👍 6 🗨 2

△△△**** 2021.7.00. 16:57
이런 기사 좋아요! 다음 기사도 기대할게요.
[답글 1] 👍 1 🗨 0

(나)

진행자: (12시 정각을 알리는 음향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2시 현재, ‘생방송 뉴스를 듣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도와 세상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는 최 □□ 기자를 모시고 ㉔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어제 신문에 두 번째 연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해의 지명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단순히 방위의 개념을 표현한 지명으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동해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청취자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셨네요. “세계 지도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표기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 네. ㉕ 1919년 국제수로국을 창설하기로 결의한 후, 1923년 국제수로국 회의에서 일본이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착된 것이지요.

진행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뉴스 속보가 들어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누리집의 다시 듣기 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전달 매체	인터넷	라디오
매체 자료 생산자	기자	진행자와 기자
매체 자료 수용자	신문 독자	대담 청취자

- ① (가)의 댓글을 보니 매체 자료 수용자인 독자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될 수도 있군.
- ② (가)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와 동시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한번 생산한 매체 자료의 내용은 다시 수정할 수 없겠군.
- ③ (나)는 다른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매체 자료 수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군.
- ④ (나)는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듣기 서비스로 이를 보완하고 있군.
- ⑤ (가)는 문자, 도표, 영상으로, (나)는 음성, 음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마지막 문장을 명령형으로 종결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가):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고려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 표제를 피동으로 표현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나): ‘기자’는 현재 시제만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 ‘진행자’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㉑~㉕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체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매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매체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며,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

- ① ㉑: 검색을 통해 통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판단해야겠어.
- ② ㉒: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며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한지 점검해 봐야겠어.
- ③ ㉓: 관련된 뉴스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 내용과 비교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
- ④ ㉔: 매체 특성상 이야기의 세부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해야겠어.
- ⑤ ㉕: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므로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 공정한지 평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